

2011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듣 기]

<1번> 이제 우리 건축에 관한 수업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 바람이 통하고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창이 발달했습니다. 창은 용도나 위치, 모양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며 알아볼까요? ('딱각'하는 프레젠테이션 소리)

이 그림을 보시죠. 이것은 '세살창'이라 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창입니다. 세로살은 꼭 차 있지만 가로살은 위아래와 가운데만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씩 채워져 있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이)

다음 그림은 '불발기창'이라 합니다. 이 창은 방문의 중간 정도에 만들어진 팔각형 모양의 작은 창입니다. 햇볕이 잘 들도록 만든 것이죠. (사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광창'이라 합니다. 출입문이나 방문 위에 길게 달린 것으로 통풍을 위해서 설치된 창입니다. 창살은 촘촘하며 빗살 모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

다음 그림은 '봉창'입니다. 봉창은 크기가 작으며 벽에 만들기 때문에 창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창틀이 없습니다. 살림집에서는 부엌에 통풍을 위하여 벽을 뚫고 살대를 대략 엮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창호지를 바르지 않습니다.

1. [출제의도] 발화 정보 확인하기

교사가 제시한 자료는 '세살창', '불발기창', '광창', '봉창'이다. ① '봉창'으로 창틀이 없다. ③ '광창'으로 방문 위에 길게 달린 창이다. ④ '세살창'으로 세로살은 꼭 차 있지만 가로살은 위아래와 가운데만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씩 채워져 있는 창이다. ⑤ '불발기창'으로 방문의 중간 정도에 만들어진 팔각형 모양의 작은 창이다. 그러나 ②는 '눈썹기창'으로 일조와 관계없이 겨울철 밖의 동태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경우 만드는 작은 창이다.

<2번> 이번에는 짧은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들 : 아휴~ 냄새! 엄마! 이제 무슨 냄새예요?
엄마 : 응, 청국장. 엄마가 우리 아들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지.
아들 :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요, 냄새 때문에 좀 그래요.
엄마 : 일단 맛을 보면 냄새는 금방 잊을 정도로 맛있는 게 바로 청국장이야.
아들 : 그래요? 그런데 엄마! 청국장은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한 거죠?

엄마 : 어? 그..... 글썸.
아들 : 인터넷에서 찾아볼까요?
엄마 :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가 찾아볼게. (사이, 자판치는 소리) 여기 있네. 된장은 삶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햇빛과 바람 속에서 서너 달 동안 서서히 발효된대. 그 사이에 냄새도 빠져나가는 거지. 하지만 청국장은 삶은 콩에 빗질을 쫓아 따뜻한 곳에서 2~3일간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만든다는 거야. 발효기간이 짧아서 냄새가 심한 거였네. 그런데 빗질은 왜 쫓는 걸까?
아들 :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빗질에는 콩의 발효를 돕는 고초균이라는 균이 붙어 있대요.
엄마 : 음.
아들 : 엄마! 청국장은 건강에 왜 좋은 거죠? 그것도 한 번 찾아봐요.
엄마 : 그래.(자판치는 소리) 우리나라 장 종류 중에 유일하게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리고 사포닌이라는 항암물질이 들어 있고, 콩에 있는 기름은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
아들 : 어? 여기 보니까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B2, 빈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도 많대요. 저보다 엄마, 아빠가 더 많이 드셔야겠는데요?
엄마 : 그래? 우리 아들 기특한데. 그런데 너 요즘 살 빼고 싶더? 청국장에는 지방을 배출시켜서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성분도 많대.
아들 : 그~래요? 청국장 많~이 먹어서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야겠네요. 하하.

2.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주요 내용 파악하기

빗질을 사용하는 것은 콩의 발효를 돕기 위한 것이다. ① 청국장은 우리나라 장류 중 유일하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된장보다 싱겁다. ② 콩에 있는 기름이 노화방지 기능을 한다. ③ 된장은 발효 기간이 서너 달이지만 청국장은 2~3일 정도이다.

<3번>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꽃 기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접시꽃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접시꽃은 꽃모양이 접시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국 서부와 서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꽃이 크고 속속 잘 자라며, 쉽게 번식하죠. 예로부터 축귀 화라고 불리면서 선비들이 시를 지을 때 즐겨 인용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최치원은 '축귀화'를 통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를 한탄하기도 했죠. 이 꽃은 보통 6월에 개화를 합니다. 일저드랑이나 줄기에 나팔꽃 모양의 꽃이 촘촘히 달리고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5개씩이죠. 무궁화꽃과 모양새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주로 붉은색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연한 분홍색이나 흰색의 꽃도 있습니다. 수술은 많고 암술대는 한 개인데 암술머리가 여러 개로 갈라진 모양이에요. 열매는 9월에 볼 수 있는데 시든 양파 모양이고 그 안에 접시처럼 납작한 씨앗이 세로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잎은 서로 어긋나고 가장자리가 5~7개로 갈라지고 짧은 털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집 마당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 꽃이 서양에서는 향신료나 약재로 쓰일 만큼 귀한 재료입니다. 학명도 '알타에아 로제(Althaea Rosea)'라고 하여 '치료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의학에서도 이 꽃의 꽃

잎이나 뿌리를 달여 병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두통이나 이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 [출제의도] 방송을 듣고 세부정보 파악하기

접시꽃은 꽃모양이 접시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학명인 '알타에아 로제'는 '치료시키다'라는 뜻이다. 또한 꽃이 피는 시기와 꽃의 생김새 등 생태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접시꽃의 꽃잎이나 뿌리를 달여 먹으면 두통이나 이뇨 등의 효능이 있다. 접시꽃의 열매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번식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4~5번> 다음은 동아리 회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남) :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우리 동아리의 활동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회의 내용을 토대로 활동 계획서를 써야 하나 메도들 하구. 많이들 생각해 봤지?
학생(여) : 선생님, 우리는 환경 동아리니까, 음식을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남) : 음,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이라.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학생(여) : 제가 알아보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하천과 토양,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된대요.
학생(남) : 그렇다면 우리 환경 동아리가 적극 나서야겠는데요?
선생님(남) : 그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면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학생(여) : 어,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학교나 공공서의 사례를 봤는데요. 10%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남) : 그럼, 음식을 쓰레기 10%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동아리가 한 번 뛰어 보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
학생(여) : 표어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캠페인 활동을 했으면 해요.
학생(남) : 음, 그리고 방송반과 협조해서 공익 광고를 만드는 것도 좋겠어요.
선생님(남) : 다들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을 세워 볼까?
학생(여) : 표어와 포스터는 다음 주까지 제작해야겠어요.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그걸 지고 캠페인 활동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익 광고 촬영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구요.
학생(남) : 공익 광고 촬영을 이번 달 안으로 하는 건 무리야. 선생님, 다음 달 안으로 만들어서 아침 조회 시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선생님(남) :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그런데, 우리 활동이 계획대로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학생(남) :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친구들도 잘 알게 될 거예요.
학생(여) : 내 힘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자긍심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남) : 그렇겠구나. 자, 오늘 모두 수고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보거라.

4.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음식을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음식을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는 것과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되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선생님은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 지?',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발언을 이끌어내고 있다.

[쓰기]

6. [출제의도] 추출한 의미를 바탕으로 내용 생성하기

빗물에서 추출한 '메마른 땅을 적심'의 의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온정' 정도의 의미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의미는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은 '대구의 형식을 활용할 것',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할 것',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의미를 담을 것'이다. 이러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①이다. ② 대구의 형식과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내용만 드러나 있다. ③ 대구의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감각적인 이미지만 드러나 있다. ⑤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의미만 일부 드러난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 및 보완하기

'II-2-다'는 학교시설이 미비하여 스포츠클럽 창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부족한 학교 시설을 대신해 지역 사회 체육 시설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이것을 '학교 간 스포츠 클럽의 교류 확대'로 수정하는 것은, 주제와의 관련성도 없고 'II-2-다'와의 논리성도 떨어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 효과'는 '교내 스포츠클럽 창단의 필요성과 의의'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I'의 하위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자료 (가)는 첫다운 제도의 개념과 도입취지를 밝히는 신문 보도이다. 자료 (나)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를 둔 학부모와의 인터뷰인데, 자녀의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해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료 (다)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현황과 인터넷 게임 중독물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즉,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물이 성인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①, ②, ④, ⑤는 주어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③번은 잘못된 자료 활용 방안이다. 즉, 이 글의 주제가 '첫다운 제도를 통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다룬 글이지 성인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글이 아니다. 또한 ③번은 (가)에 나타난 첫다운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내용이므로 부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10. [출제의도] 교차쓰기의 적절성 평가하기

문맥을 고려해 ㉞을 앞문장과 바꾸면 관형어 '이러한'이 지시하는 것이 앞문장의 '피해야 할 것들'인데,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진술은 성립되지 않는다. ① 문장의 주어가 '그 이유'이기 때문에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바뀌기 때문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삼가다'가 기본형이므로 활용형은 '삼가야'로 고쳐야 한다. ④ 이 글은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㉞은 글 전체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 한다. ⑤ '배가 고프다'는 '허기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허기진'을 삭제해야 한다.

11.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둘러주다(반환하다)', '손실을 물어주다(변상하다)', '은혜를 갚다(보답하다)', '양갈음하다(보복하다)' 등의 의미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고유어는 '꾸거나 빌리거나 받은 것을 도로 돌려주다, 은혜, 원한 등을 그에 맞게 보답하다'의 뜻을 가진 '갚다'이다.

12. [출제의도] 관형어의 문법적 특성 파악하기

ㄱ의 '-던', '-는', '-르'는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ㄴ은 '달리다', 형용사 '새롭다', '예쁘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 -는'이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ㄷ은 체언에 결합된 서술격 조사 '이다'가 변형되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ㄹ의 '은갓', '새', '저', '두'는 자체가 관형사인 관형어이다. ㄷ은 두 관형어가 나열된 경우이다. 이 때 '은갓'과 '저'는 뒤에 오는 '새'와 '두'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체언인 '물건들'과 '남자'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

[시가 복합]

[13~18]

<출전>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정일근, 「점심, 후회스러운」
정약용, 「보리타작」

13.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는 동물원 우리에 갇힌 짐승을 통해 땅국인임을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나)에는 최씨 아주머니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비정한 인간이라고 느끼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다)에는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다.

14. [출제의도] 시상 전개를 중심으로 내용 이해하기

공간 I 은 현실, 공간 II는 동물원, 공간 III은 동물원의 '철책 안'이다. 화자는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 공간 II 을 찾아갔으나, 그 의도와 달리 자신이 땅국인임을 확인하게 되며, 이는 공간 II와 III이 전도되었다는 인식으로 심화된다.

15.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를 중심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한다)'는 최씨 아주머니를 불면목이 없다는 미안함을 느끼기 때문인지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여름 폭염'은 '나'와 최씨 아주머니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편안한 점심을 먹으려는 화자의 의도는 최씨 아주머니의 처지를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나는 안다'를 반복하는 것은 최씨 아주머니에게 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고, '먹을수록 후회스러운 식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16.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나)는 '나는 안다~ 고통의 계단.....', '나는 안다~그녀의 삶'은 어순이 도치된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이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17. [출제의도] 시상 전개를 중심으로 작품 이해하기

[A]에는 보리타작 전의 상황, [B]에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 [C]에서는 [A]와 [B]를 통해 '마음이 몸의 노에 되지 않았다'는 정신적 의미를 이끌어내어, [D]에서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하고 있다. [A]~[D]는 과거에 없애지지 않으려는 의지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시적 대상을 통해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18.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은 화자의 내면을, ㉡은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흥겨운 상황을 부각하는 소리이다.

[사 회]

[19~22]

<출전> 찰스 리드비터,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19.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이 글에는 집단지성이 제약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① 1문단의 '집단지성이란~의미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② 3문단의 '리눅스 커뮤니티는~구성되어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집단지성이 주목받게 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④ 3문단 전체를 통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20. [출제의도]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핵심의 주변에 모여든 기여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균질해서는 안 된다. 기여자들은 다양한 기술과 관점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될 때 효율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① 핵심이 복잡하고 완벽하지 않아야 기여자들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핵심이 단순하고 완벽하다면 기여자들은 도전의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② 핵심 주변의 기여자의 규모가 되도록 크게 성장해야 효율적이다. ⑤ 분열된 공동체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2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찾기

공유를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해낸 사례를 찾아야 한다. ㄱ은 자사의 기술 일부를 공유해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고, ㄷ은 자발적 참여자들의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방대한 규모의 인터넷백과사전을 창조해낸 사례이다. ㄴ은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통해 정례회의를 함으로써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맞지만 자발적 기여자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며, ㄷ은 개인 소유에서 주주 소유로 기업의 소유형태가 달라졌을 뿐, 공유를 바탕으로 창조를 이루어낸 사례가 아니다.

22. [출제의도]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찾기

'꾸러졌다'는 문맥상 '형성(形成)되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형성(形成)은 '어떤 형상을 이룸'을 뜻한다.

[인문]

[23~26]

<출전> 정창수,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23.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아동기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신체적 자아'와 '활동적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의식하며 추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 두 시기를 거치면서 자아와 도덕성은 통합을 향해 가는데, 청소년기에 진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와 관련 짓기

아동기에는 신체적 자아와 활동적 자아가 발달하고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가 발달한다. 신체적 자아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와 관련된 진술에서, 활동적 자아에 해당하는 것은 활동과 관련된 진술에서, 사회적 자아에 해당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과 관련된 진술에서, 심리적 자아에 해당하는 것은 신념·사상과 관련된 진술에서 찾을 수 있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갑'이 버스의 노약자석에서 잠든 척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통해, 청소년기 전기에 발달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자아인 '사회적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② 심리적 자아는 자신의 신념 체계, 개인 철학과 관련된 자아이다. '갑'이 하는 수 없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자신의 신념 체계·개인 철학과 관련된 심리적 자아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③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리를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④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드리지 않은 것은 자신의 피곤함과 힘든 것만을 생각하는, 즉 주된 관심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 아동기 자아 수준의 모습이다. 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끼고 행동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아'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26.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은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다, 생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사용된 것은 ㉡이다. ① '어떤 일을 당하다.'의 의미이다. ②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는 의미이다. ③ '판단의 기초로 삼다.'의 의미이다. ④ '눈으로 대상을 알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현대 소설]

[27~30]

<출전> 윤홍길, 『떨감』

27.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에 따른 효과 파악하기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 토란을 기대만큼 많이 구하지 못한 아버지의 실망감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려는 아들의 마음을 부각하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아버지와는 주인의 갈등은 있지만 특정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28. [출제의도] 소재와 인물의 관계 파악하기

이 작품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토란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지만 토란이 묻힌 눈을 가진 '논 주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토란'은 '나'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자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위해 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토란'에 대한 권리를 '논 주인'에게 샀으나 '토란'이 없는데도 논바닥을 깊게 파서 '논 주인'에게 제지당하게 된다.

29. [출제의도] 소재의 공간적 기능 파악하기

아버지는 구덩이를 파면서 남보다 많은 토란량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한 결과에 실망하고 구덩이 속으로 아들을 불러 함께 눕는다. '구덩이'라는 좁은 공간은 두 인물의 심리적 거리가 축소되는 공간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무능함을 토로하는 공간이며, 아들이 아버지의 고단함을 이해하는 동시에 사랑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30. [출제의도] 내용의 의미 파악하기

아버지는 기대했던 일이 잘못되면서 그 원인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나 운수가 아닌 자신의 무능함에서 찾고 있다. 구덩이에서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능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가진 마음의 무게를 이해하고 안쓰러운 감정을 느낀다.

[과학]

[31~33]

<출전> 김상욱, 『영화는 좋은데 과학은』

31.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과학적 원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32. [출제의도] 정보의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

(가)는 남학생이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그림이고, (나)는 좁은 지역을 지나기 위해 긴 장대를 들고 있는 그림이다. (다)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①, ② 2문단의 '지지점은 물체가~안정 영역이 된다.'와 3문단의 '일반적으로 평지에서~안정 영역이 줄어들어'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무게 중심이 지지점과~회전하며 넘어진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만약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게 중심이 지지점과~회전하며 넘어지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그러나 ④ 3문단의 '장대를 든 경우, 곡예사의 무게 중심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관성 모멘트는 커진다.'이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33.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곡예사가 특별한 기교 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이유는 4문단에의 '왜냐하면 곡예사의 무게 중심은 장대가~아예 외줄 아래까지 내려가기 때문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고전 소설]

[34~37]

<출전> 작자 미상, 『홍계월전』

3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홍시랑은 서달을 피해 벽파도로 온 것이 아니라 장사랑의 난에 잡혀 정배되어 온 것이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서사 구조 파악하기

홍시랑 부부의 목을 베려 하는 행위는 계절 자신의 고난과 시련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홍시랑 부부가 자신의 부모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영웅서사구조의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이라고 보기 어렵다.

36. [출제의도] 대화를 통한 내용 파악하기

[A]에서 계절은 홍시랑과 양씨부인이 부모임을 모르고 한 말이다. 즉 여기서 계절은 군대의 '원수'로서 발화한 것이다. 그런데 [C]의 발화는, 양씨부인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고 말한 것으로 [A]에 나타난 인물 관계가 [C]에서 전환된다는 사실은 적절하다. 또한 [B]는 양씨부인의 하소연으로 계절과 헤어졌던 내용이 드러난다. 따라서 [B]는 양씨부인이 계절의 어머니임을 알게 하는 단서, 즉 계기가 된다.

37.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의 상황은 서달을 토벌하려 벽파도에 왔던 계절이 하늘의 도움으로 부모를 만났다는 내용으므로 '하늘이 돕고 신이 도움'을 뜻하는 '천우신조(天祐神助)'가 적절하다. '풍수지단(風水之嘆)'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이미 돌아가셔서 행할 수 없음을 탄식함'을,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사방을 적이 둘러싸고 있어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동상이몽(同床異夢)'은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함'을,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고마움이 깊어 잊을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기술]

[38~40]

<출전> 김진용, 『원히 보이는 3D 기술』

38. [출제의도] 중심 화제 파악하기

이 글은 모션 캡처를 설명하는 글이다. 모션 캡처의 자료 추출 방식을 중심으로 모션 캡처를 설명하므로 이 글의 중심 화제는 ㉡번이다.

39.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통한 내용 이해하기

광학식 모션 캡처 방식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은 5~6문단에 나와 있다. ① 6문단의 '촬영 중 동작에 의해 표식이 가려지면~최소로 줄여야 한다.'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5문단의 '이 표식은 크기가 작아 위치나 개수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5문단의 [단계3]과 [단계4]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으며, ⑤ [단계5]에서는 좌표 값을 연결하여 뼈대 구조를 가지는 모션 데이터로 변환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④ '일부 좌표 값을 구할 수 없다면, 부속된 표식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다. [단계4]에 대한 설명과 6문단을 고려할 때, '일부 좌표 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촬영 중, 동작에 의해 표식이 가려지는 경우를 말한다.

40.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기계식, 자기식, 광학식 데이터 추출 방식은 5~6문단에 설명되어 있다. ① 5문단의 '이 표식은~자유로운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와 2문단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다.' 3문단의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2문단의 '다른 시스템에 비해 장비의 가격도 저렴하다.'와 6문단의 '광학식 장비는 다른 시스템에 비해 고가이냐'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④ 2문단의 '공간의 제약을 받

지 않는다.'와 3문단의 '자기장의 공간도 제한적이다. 또한-발생할 우려가 있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㉓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㉔은 3문단의 '갑 지기에 연결된 여러 가닥의 케이블선이 몸에 붙어 있어'와 4~5문단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회 곡]

[41~43]

<출전> 이강백, 『주라기의 사람들』

4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지부장은 소장과 광부 박씨에 의해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게 되자, 만석에게 '사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부장은 만석이 말한 '사실'을 이용해 지위 상승을 꾀한 것은 아니다. 만석이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부들은 만석에게 '어떻게 된 거야? 사실대로 말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광부들이 만석이 말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광부 박씨는 소장의 편에 서 있으므로 광부 박씨와 소장이 만석에게 바라는 '사실'의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 추리하기

<보기>의 내용은 이 작품에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고, 광부 박씨와 소장은 만석의 자기 반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A]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리해 볼 수 있다. ① [A]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광부 박씨와 소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A]의 내용은 인간의 소시민성과는 관련이 없다.

43. [출제의도] 연극 상황에 적용하기

㉑에서 소장은 지부장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호기심이 생긴다는 듯 지부장에게 다가서며 말하라는 연기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 ㉒에서 지부장은 소장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소장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침착하면서도 설득적인 어조로 말하라는 것은 적절하다. ㉓에서 만석은 갱의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할 듯하다가 결국 말하지 않고 있는데, 만석이 갱의 사고 원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지를 관객들은 매우 궁금해 할 것이기 때문에 관객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대사의 속도에 유의하며 말하라는 것은 적절한 연기 지시라고 할 수 있다.

[예 술]

[44-47]

<출전> 루이스 자네티, 『영화의 이해』

4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형식주의'와 '사실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들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형식주의'와 '사실주의'의 공통점은 물리적인 현실세계는 모든 영화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다. 두 대상의 차이점은 사실주의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형식이나 편집보다는 영화의 내용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형식주의 영화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현실의 소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사건의 이

미를 조작하는 영화 형식이다. ㉓ 20세기 들어서기 전에 영화는 형식주의와 사실주의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있지만, 두 대상의 변화 양상이 시대별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4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미루어 알기

형식주의 영화는 소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사건의 이미지를 조작하지만 현실 세계의 소재를 활용한다.

46. [출제의도] 관점을 대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보기>의 관점에서 ㉑의 관점을 비판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㉑은 사실주의 영화의 전제이다. <보기>는 형식주의의 특징으로 '전체 물질적인 속성들을 의도적으로 재현할 것일 뿐이다'의 의미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표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㉓ 극단적 사실주의적 경향인 다큐멘터리도 현실의 모든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 감독은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현실의 일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완벽한 재현은 불가능하다. ㉒ 사실주의 영화 입장에서 형식주의 영화를 비판한 것이다.

47.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기발'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유달리 재치 있게 뛰어나다는 뜻이다. ㉑은 '월등'의 의미이다.

[언 어]

[48~50]

<출전> 정희창, 『떡어쓰기의 원리와 실제』

48.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1문단에서 <한글맞춤법>의 떡어쓰기 원칙을 명시하고, '단어'를 기준으로 떡어쓰기를 설명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2~4문단에서는 보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2문단에서는 자립성을, 3문단에서는 긴밀성을 기준으로 떡어쓰기 규정을 보완한다. 4문단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이 합성어와 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떡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보조용언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49. [출제의도]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하기

'정문'과 '바로'는 자립성이 있으므로 띄어 써야 함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돌아오는'은 '돌다'와 '오다'가 결합한 한 단어이므로 의미 관계가 긴밀하여 붙여 써야함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에서'는 조사이므로 단어이지만 붙여써야하므로 단어가 떡어쓰기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떡어 보았다'의 '보았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중간에 다른 요소가 끼여들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성어와 같음을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업한'의 '-한'은 접미사 '하다'가 활용되어 명사인 '개업' 뒤에 붙어 쓰인 것이다. 《한글맞춤법》 제41항은 '조사'가 단어이나 앞말에 붙어 쓴다는 예외규정이다. 그러므로 접미사인 '-하다'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50. [출제의도]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 적용하기

'벼락부자'는 '갑자기 된 부자' 즉, '졸부'의 의미를 지닌 합성어이다. 이는 '벼락'과 '부자'라는 구성요소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로 변한 것이다.

나머지 단어는 구성요소의 의미로 합성된 의미를 알 수 있다.